

-군요

아, 그렇군요 — 새로 알게 된 사실

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타냅니다. -네요와 비슷하지만,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형용사	-군요	좋다 → 좋군요
동사, 현재	-는군요	가다 → 가는군요
동사, 과거	-았/었군요	갔군요
르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군요
이다	-(이)군요	학생이군요
반말	-구나 / -는구나	좋구나

■ 언제 쓰나요

품사에 따라 형태가 나뉩니다. 형용사와 이다에는 -군요를 붙입니다: 좋
군요, 학생이군요. 동사에는 -는군요를 붙입니다: 가는군요, 먹는군요. 과
거형 동사는 시제 표지가 그 자리를 채우므로 다시 -군요를 씁니다: 갔군
요.
르로 끝나는 어간은 -는군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는 만드는군
요.

-네요가 즉각적인 반응이라면 -군요는 결론처럼 들립니다. 아, 그래서 늦
었군요 — 아, 그래서 늦었군요. 조금 더 문어적인 느낌이 있어 글이나 신
중한 말투에서 많이 쓰이며, 친구 사이에서는 반말 형태인 구나를 씁니
다.

■ 예문

- 1 아, 그래서 안 오셨군요.
- 2 한국어를 오래 공부하셨군요.
- 3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군요.
- 4 생각보다 어렵군요.
- 5 벌써 시작했군요.
- 6 날씨가 정말 좋군요.

■ 비교

-네요
-네요는 눈앞의 상황에 반응하는 말이고, -군요는 스스로 내린 결론을 전
하는 말입니다. 일상 대화에서는 -네요가 훨씬 자주 쓰입니다.
비가 오네요. (밖을 보면서) / 비가 오는군요. (그래서 다들 젖었구나)

-지요?
-군요는 새로 알게 된 것을 나타내고, -지요?는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을
확인합니다.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한국 사람이군요. (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됨) / 한국 사람이죠? (한국 사
람 맞지요?)

-구나
친한 친구에게 말하거나 혼잣말할 때 쓰는 반말 형태입니다. 요를 붙이
면 다시 해요체가 됩니다.
벌써 왔구나. (친구에게) / 벌써 왔군요. (해요체)

■ 주의

- ✗ 한국어를 잘하군요.
- 한국어를 잘하는군요.
현재형 동사에는 -는군요를 씁니다. 짧은 -군요는 형용사와 과거형 동사에만 씁
니다.
- ✗ 날씨가 좋는군요.
- 날씨가 좋군요.
좋다는 형용사이므로 -는을 붙이지 않습니다. 이 구분은 관형사형 체계와 같습
니다. 동사에는 -는이 붙고 형용사에는 붙지 않습니다.
- ✗ 매일 요리를 만들는군요.
- 매일 요리를 만드는군요.
르로 끝나는 어간은 -는, -네요 앞에서는 똑같이 -는군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
다.